

'호날두 해트트릭' 레알, 챔스 4장 진출

8강 2차전 뮌헨 연장전 끝 4-2 제압... 호날두 챔피언스리그 1호 100호골 주인공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해트트릭을 기록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제압하고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 안착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비우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뮌헨을 연장전 끝에 4-2로 제압했다.

1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둔 레알 마드리드는 합계 6-3으로 뮌헨을 따돌리고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세 골을 몰아넣은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1호 100호골의 주인공이 됐다.

4년 만의 정상에 노리던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의 벽을 넘는데 실패했다.

후반 막판 아르투로 비달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해 수적 열세에 몰린 것이 아쉬웠다.

반드시 두 골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했던 뮌헨은 전반 9분 아르연 로벤의 슈트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에 질세라 레알 마드리드는 카림 벤제마와 다니엘 카르바할의 슈트로 맞섰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28분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그의 발을 떠난 공은 골라인을 통과하지 못한 채 뮌헨 수비수가 건어냈다.

첫 골은 후반 8분 뮌헨이 가져갔다. 로벤이 카세미루로부터 얻어낸 페널티킥을 로베르트 레만도프스키가 침착하게 차 넣었다.

레알 마드리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후반 31분 카세미루의 크로스를 호날두가 머리로 마무리했다.

뮌헨 수비수가 달려들었지만 호날두를 막아내지 못한 채 역부족이었다.

이대로 끝날 경우 레알 마드리드가 준결승에 오르는 상황.



레알 마드리드는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비우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뮌헨을 연장전 끝에 4-2로 제압했다.

비탈 끝에 몰린 뮌헨에 행운이 따랐다. 후반 32분 라모스가 살짝 뒤로 내준다는 것이 호흡이 맞지 않아 그대로 레알 마드리드의 골문을 통과했다.

뮌헨이 2-1로 앞선 채 90분을 보낸 두 팀은 30분짜리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전은 레알 마드리드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진행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전반 14분 호날두가 라모스의 패스를 트래핑 후 왼발슛으로 연결해 2-2를 만들었다.

호날두는 연장 후반 4분에도 마르셀루의 패스를 받아 쇄기끝까지 터뜨렸다.

마르셀루는 특유의 돌파로 뮌헨 수비진을 뚫어낸 뒤 호날두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뮌헨은 후반 39분 비달의 퇴장 이후 동력을 잃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또 다른 8강전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레스터 시티(잉글랜드)가 1-1로 비겼다. 1차전 1-0 승리를 등에 업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합계 2-1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은 레스터 시티는 0-1로 뒤져있던 후반 16분 제이미 바디의 골로 뒤집기를 노렸으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연장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에 호되게 당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 후반 7분 마르코 아센시오까지 득점 행진에 가담하면서 뮌헨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다.



전북현대 에델,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MVP 선정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북현대의 에델이 6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6일 전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EB 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6라운드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전반 13분과 후반 22분 멀티골을 기록한 에델을 MVP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북은 에델의 2골과 에두(1골 1도움), 김신욱(1골)의 득점에 힘입어 상주를 4-1로 대파하고 리그 선두에 등극했다.

베스트11 공격수 부문에는 양동현(포항), 에두(전북)가 뽑혔다. 미드필더 부문에는 에델과 함께 김보경(전북), 발렌티노스(강원), 김인성(울산)이 이름을 올렸다.

수비수에는 이슬찬(전남), 박동진(광주), 김광석(포항), 최효진(전남)이 뽑혔고 골키퍼 부문은 신화홍(수원)이 선정됐다.

챌린지(2부리그) 7라운드 MVP는 FC양양의 정재화가 차지했다. 정재화는 16일 인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아산과의 경기에서 후반 35분 선제골을 기록하고 후반 48분 최재훈의 골을 도우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프로축구연맹은 2017 K리그 클래식, 챌린지의 매라운드 최우수선수를 라운드 MVP로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은 연맹 경기평가회의에서 경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선정 결과는 향후 2017시즌 K리그 베스트11과 MVP 선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문체부, 스포츠산업 신기술 개발 연구기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KSPO)과 함께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의 지정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포츠와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의 스포츠용품 또는 스포츠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국가대표 등 전문스포츠 분야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경기) 장비 개발 등 지원이 목적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스포츠계의 다양한 기술 분야 및 사업 영역 중에서도 현장의 수요가 있거나 정책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매년 별도로 기획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해당 과제를 연구할 기관을 모집한다.

올해는 ▲스포츠 멀티 인공환경 구현 시스템 기반 다중압력(음·대기·양) 일체형 챔버 개발 ▲근육활성도 측정용 무선기반 다채널 근적외선 분광장치 및 맞춤형 훈련시스템 개발 ▲능동형 서스펜션 기반 장애인 선수용 모노스키 개발 등 총 4개 과제를 기획했다.

해당 과제들은 과제별 지원 금액이 상이하나, 2년간 최대 18억 원까지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기업·연구기관·대학교 등은 자유롭게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KSPO, 한국스포츠개발원 누리집 및 이(e)-나라도움시스템 등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김민근기자

중앙-지방정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위해 '맞손'

협의회서 지자체별 대회기간 문화행사·자원봉사자 교육 등 참여·지원 요청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맞손'을 잡는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제2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홍윤식 행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

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이희범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체육정책실장 등 17개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가 참석했다.

조직위는 이날 회의에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지자체별로 대회기간 문화행사 및 성화봉송 행사 개최 자원봉사자 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회 시기별·단계별

홍보 및 국내·외 불 조성 방안과 개최도시 관광수용인프라 개선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평창올림픽 지원전담기구(평창동계올림픽 중앙·지방협력지원단)를 올해 3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자치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약속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88서울올림픽과 2002월드컵 등 그간의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